

# 전남대·목포대 '5년간 1천억' 글로벌대 예비 지정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선정, 광주보건대는 초광역 연합  
교육부, 실행계획서 검토 8월 최종 지정...조선대 등 내년 재도전

전남대와 목포대, 동신대(연합) 등 지역 대학이 '글로벌대 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16일 이들 대학을 비롯해 모두 28개교(연합대학 포함)를 '2024년 글로벌대 예비 지정 대학'으로 발표했다. <관련 기사 7면>

지정을 신청한 전국 109개교를 대상으로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위권으로 분류한 대학이다.

'글로벌(Glocal, Global+Local) 대학 30'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대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한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전남대에서는 목포대가 단독 신청해 예비 대학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예비지정을 통과해 본지정 평가 때 탈락한 전남대는 이번에도 자동으로 포함됐다.

연합 신청 부문에서는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선정됐다. 초광역 연합대학 부문에서는 광주보건대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연합이 예비지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광주·전남 대학들은 초광역 캠퍼스, 공공형 연합 대학 등 혁신모델을 제안했다.

단독 신청한 전남대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초광역 매가 캠퍼스를 구축해 세계적인 수준의 융·복합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목포대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 그린 해양에너지에 특화된 6개의 '글로벌 Only-1'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동신대는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가 연대해 '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학' 구상을 제시했다. 지자체장, 대학총장, 지역혁신기관 간 연합이사회를 구성해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전남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고교 연계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

안이다.

광주보건대 연합은 보건 의료계열 전문대학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 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실행계획서를 검토해 8월 말 글로벌대학을 최종 지정한다.

이번에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들은 내년에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가 글로벌 대학으로 모두 3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더 문호가 좁아진다.

지난해 순천대를 비롯해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고 올해도 10여개 대학이 선정될 예정이다. 결국, 내년에는 10개 대학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른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해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비 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도 8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벌대 신청과 함께 각 대학이 제출한 165건의 규제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벌대 신청에서 대학들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글로벌대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연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목포 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참사 10년...광주·전남 '추모 물결'



진도 맹골수도 해역 선상추모식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도 이어져

기억식에서는 기억사, 추모사, 연대사, 추모 연주와 공연 등이 진행돼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기억사에서 단원고 2학년 9반

수학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아이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니 10년째 되는 16일 광주·전남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각종 추모행사에서는 세월호 침몰원인, 구조 문제 등 10년째 묻혀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6면>

이날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는 선상추모식이 엄수됐다.

목포해양경찰이 마련한 경비함정에서 열린 선상 추모식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37명을 비롯한 4·16재단, 안산안마음센터 관계자 11명 등 총 86명이 참석했다.

이후 오후 2시 30분에는 목포선항에 영구보존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리는 추모제인 '기억식'이 이어졌다.

고(故) 정다혜양의 어머니 김인숙씨는 "10년의 시간이 흘러도 내 딸은 17살에 머물러 있다"면서 "10년이 흘러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딸이 잊혀져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수습됐던 진도 팽목항에서도 유족들과 함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노래·공연은 진도 국악고등학교 학생들과 예술인들이 맡았다. 4월 16일을 기억하기 위해 추모목념은 오후 4시16분에 진행됐다.

광주에서도 시민·예술인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지역 예술인 80여명이 각자의 예술 도구를 활용해 추모하는 '예술인 행동장'이 열렸다.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목념하는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이 탑승했으나 진도 조도 해역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국민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다. 실종자 5명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목포·진도=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법무법인 거북이 설립인사

저는 이번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든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거북이의 대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 4. 17.  
법무법인 거북이 대표변호사 김태호 올림

주요 학력 및 경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 34기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개시일 : 2024. 3. 28.  
주 소 : 광주 서구 상무연호로112, B동 302호(시평동, 재갈빌더2터49)

대표전화 : T. 062-710-0900, F. 062-710-0907  
광주지산 분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10, 2층(지산동)  
서울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4, 503호(서초동, 화평빌딩)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